

# 광주시립극단, 해체 25년만에 재창단

### 시의회 예산 통과 내년 상반기 중 6명으로 출발 극단 구성·운영, 관·민 윈윈시스템 등 논의 필요

지난 1982년 11월 23일 창단됐던 광주 시립극단은 전국 최초의 관립(官立) 극단이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립극단은 상임연출과 상임·비상임 단원 등 모두 27명 규모로 이상용·나상만·정상섭·박규상·유희성 씨 등이 참여했다.

창단 공연은 이듬해 이상용 연출로 올린 '오델로'. 이후 '황매전', '마리 보이체크' 등 11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독일에서 '다시라기' 공연까지 갖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1987년 해체됐다. 해체 원인으로 는 운영 실책, 재정 빈약 등 여러가지가 꼽혔고 무엇보다 단원들의 불화가 깊어지면서 탄원서를 내는 일이 벌어져, 결국 전격 해체수순을 밟았다.

광주시립극단이 해체된 지 25년만에 재창단된다.

광주시는 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예결위위원회가 시립극단 창단 예산 7억 1000만원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광주시립극단을 창단키로 했다.

시립극단 재창단 움직임은 해체 이후부터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강은태 시장 취임후 민선5기 24대 과제로 채택돼, 추진에 탄력을 받아 왔다.

시립극단 창단 인원은 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극단장, 안무, 음악, 작가, 프듀서(기획·홍보) 등 모두 6명이다. 이는 부산(20명), 대구(15명), 인천(28명) 등보다 적은 숫자다.

시립극단은 상임단원 체제로 운영되는 교향악단, 합창단 등 5개 예술단체와 달리 상임단원을 최소화하고 작품에 따라 단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의회 의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극단의 '소속' 문제였다. 시 측은 문화재단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창단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 측은 문화재단 운영안이 폐기되면서 현재 시 산하의 다른 예술단체처럼 광주문화예술포럼 산하에 두는 안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 장르 단체가 시립단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극단 창단 소식에 일단 지역 연극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간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준높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극단이 25년만에 재창단됨에 따라 지역 연극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 '학문외교'.

연극인들은 시립 극단이 어렵게 창단된 만큼 극단 구성과 운영 시스템, 단원 선발 등에 대해 논의의 구조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열악한 지역 연극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시립극단의 존재가 자칫, 10여개에 달하는 지역극단들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 극단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관과 민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연극인 A씨는 "극단이 창단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 연극인이 함께 시스템을 고민하는 등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기존 시립예술단체들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창단 공연 등이 늦어지더라도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화 광주연극협회장은 "25년만에 다시 극단이 창단된 만큼 좋은 시스템을 갖춘 극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며 "연극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광주 공연 예술 전반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극단 창단과 운영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화재의 아픔 딛고 '아름다운 나눔'전

보성백민미술관 재개관, 내년 2월까지

지난 2009년 화재로 전시장과 소장품 일부가 불타던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소장품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나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류경재·김원·윤재우·고화홍·이응환·이양로·이준배·최성중·강정영·강용운·김홍남·양인옥·류시원·박상섭·박문수·오승운·홍진삼·홍용만·하남호·박연석·배동신·최종섭·양두환·이두현씨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백민미술관에는 이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했고, 재개관을 맞아 기증자들의 뜻을 기



오승우 작 '해피엔드 파고다'

려 소장품전을 열게됐다. 문의 061-853-0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를 품은 예술가 24인의 광주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 내년 3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오는 6일~2012년 3월 25일 '광주를 품은 예술가 24인의 광주 이야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화 작품과 1992년 미술관 건립 당시의 기증작 중 서양화 24점을 골라 선보인다.

강연국·강용운·김영태·김재형·김종일·김환기·노의웅·박상섭·박영선·송필용·양수아·양인옥·오지호·오승우·오승운·우재길·임진순·정상섭·정승주·조규일·진양욱·진원왕·최영훈·황영성 등이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적 인상주의 미학을 개척한 구상회화의 선구자 고 오지호 화백의 '실경'과 한국 추상회화의 대가 양수아의 '작품' 등 호남 현대 화단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대작들이 대거 출품됐다.

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중견작가들의 남도의 화려한 색과 다양한 실험정신이 결합



정승주 '고물'

된 작품들도 눈에 띈다. 문의 062-613-71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현대와 고전의 만남, 그리고 조화

순천무용단 정기공연, 11일 순천문화회관

순천무용단(단장 송춘) 정기공연 '현대춤과 한국춤의 만남'이 오는 11일 오후 5시 순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남부주(전남무용계 안무상)씨가 안무한 '물에서 피는 꽃'을 선보인다. 새생명 탄생과 생존, 공존의 과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일러는 작품이다.

또 동아공쿠르에서 수상하는 등 무용수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갑원씨가 안무한 '은하철도 999'는 변화하는 문명 세계 속에서 사라져 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 작품이다.

한편 20일 오후 7시 순천문화회관 대극장



에서는 순천무용단과 함께하는 일반인 무용 작품 발표회도 열린다. 문의 061-752-06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또 한해를 보내며... 열정과 감동의 공연

광주무용協 합동공연, 내일 문화회관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 송년 회원 합동공연이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포함,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어느때보다 알찬 한해를 보낸 지역 무용계는 이번 공연에서 각 무용단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팀인 김미숙하나무용단(안무 김미숙)은 '향연'을 무대에 올리며 KDC재즈댄스무용단(안무 김성희)의 'Move your body', 양영무용단의 '영남입춤', S.W댄스(안무 정혜경·박정옥)의 'South Crown', 'Dream, together'를 만날 수 있다.

또 전국무용제에서 안무상을 수상한 박중



임씨는 비상현대무용단과 '검은그림자'를 무대에 올리며 올해 대통령상 수상팀인 토 알발레단(재안무 박선희·오윤환)의 '코렐리아' 중 '시간의 춤'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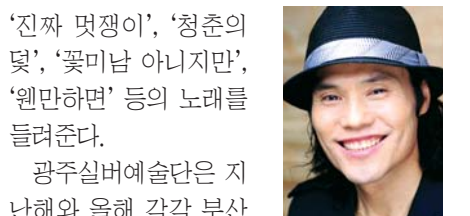
## 영·호남이 함께 송년 효사랑 음악회

광주실버연예협,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광주실버연예협회(협회장 유방희)가 주최하는 영·호남 송년 효사랑 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1시~2시30분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다.

광기근세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실버예술단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또 소명, 진국어, 진주어, 배소연, 조유정·민영아 등 초대가수들이 출연, '빠이빠이아',



'진짜 멋쟁이', '청춘의 덫', '꽃미남 아니지만', '웬만하면' 등의 노래를 들려준다. 광주실버예술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영·호남 교류음악회에 참석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